

TALK
PLAY
LOVE



태국팀 9월 보고서

목차

AMA A TUS AMIGOS
NO LES HAGAS DAÑO
MI AMIGA ME PEGA!



(សំណូមពរ ថ្ងៃក្រិស្ណ)

Handwritten notes in Thai script.

come back soon
wish we will be together someday
— พี่ พี่ .love you So Happy Together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
때를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채린

1. **일정**
2. **TALK** 이곳을 소개하다

3. **PLAY** 활동을 말하다
Good Luck!
— CHAO LING YU.

4. **LOVE** 테곡을 즐기다

5. **간이코너** 'THE ATTI NEWS'

크린 짜이, 짭 짜이, 인디, 카몬
잘 살자!
6. **개인 에세이**

- 리윤아리 | 2th 캐주얼 -

Handwritten notes in Thai script, including a phone number: 555 2.2 1.191111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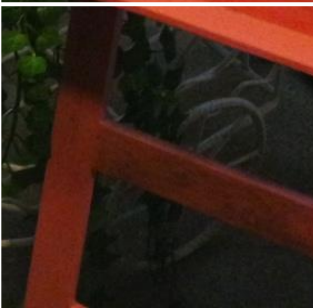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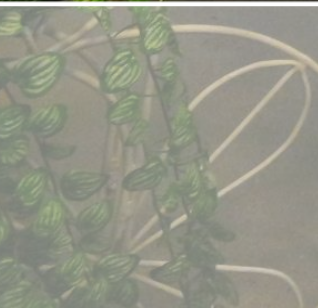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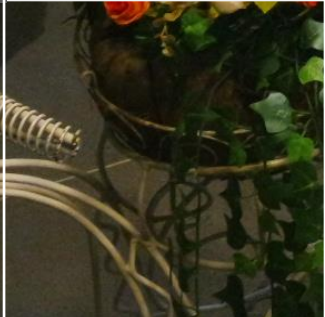
SEPTEMBER

Twenty Fourteen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3	4 도착	5 ·오리엔테이션 ·welcoming party with JKY youth	6 ·language school 영어수업 참관 ·SaohinY 방문	7 ·치앙마이 올드타운 투어 ·람폰 살락 페스티벌 관람
8 ·Hot spring 사전 답사 ·캠프 수업 준비	9 ·에너지데이 캠프 수업 진행 @Hot spring	10 ·에너지데이 캠프 수업 진행 @Hot spring	11 DAY OFF	12 ·태국어 수업 시작 ·language school 홍보(전단지)	13 ·language school 영어수업 참관	14 ·language school 영어수업 참관 ·LOVE COFFEE 커피만드는법
15 ·태국어 수업 ·바자회 옷 분류	16 DAY OFF	17 ·바자회 및 LOVE COFFEE판매 @JKY학교	18 ·태국어수업 ·LOVE COFFEE 커피만드는법	19 ·San khankeaw foundation(NGO) 방문 ·메조대학교 수산 해양과 방문	20 ·아리선생님의 교수 법 강의	21 ·수업 준비 및 시연
22 ·태국어 수업 ·1기 유정단원과의 만남	23 DAY OFF	24 ·태국어 수업 ·파전 연습	25 ·태국어 수업 ·내일 activity준비 ·파전 홍보물 준비	26 ·태국어 수업 ·Activity진행 @Wat Sansai학교	27 ·파전 판매 @LOVE COFFEE	28 ·파전 판매 @LOVE COFFEE
29 ·태국어 수업 ·태국 요리 수업	30 DAY OFF					

TALK

이곳을 소개하다



단원 소개



동영(까몬)

파파야와 팻타야를 좋아하는 까몬이
얌>3< 이름의 뜻은 heart야. 커하이
유 예뻐 나 크랍. (행복하세요)

민희(짚사이)

태국에 와서 짚사이(Jid-sai)라는 예쁜
이름을 얻었어요! Good mind라는 뜻
인데, 성조가 어려워서 제가 발음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TT



미래(퀸짜이)

Sweetheart라는 뜻의 아주 예쁜 이름을 얻
어 기분이 좋은 퀸짜이. 아이들을 만날때는
천사인척☺을 한다.
점점 현지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희(인디)

내 이름은 인디! Glad, happy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정말 나랑 잘 어울
리는 이름인 것 같아. 인디티다ירו
짜깝 (=만나서 반가워)



기관 소개

SANKHAMPAENG YMCA

태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제 2의 도시라 불리는 **치앙마이** !
치앙마이에는 총 6개지부의 YMCA가 있는데 그 중 우리가 지내는 곳은 **산캄펑YMCA**이다.
이곳은 주말에 **Language School**이 열려 영어, 수학, 태권도 수업이 진행된다.



LOVE COFFEE

산캄펑 YMCA에서 운영하는 **카페!**

For the Farmer- Organic Farm에서 수확한 원두로 만들어 지역 농장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

For the poor people-수익의 10%는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에게 환원

For the local people-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친구를맺는 따뜻한 공간

For the earth- 화학비료나 기타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

스텝 소개

P'Mom

담당 코디네이터!
우리의 친절한 태
국어 선생님. 정말
맛있는 무뽕의 위
치를 알고 계신다!
나중에 꼭 알아내
야지.

P'Ton

담당 코디네이터! 항상
우리 의견을 잘 들어 주
신다♡ 숨은 요리 고수!
팟타이를 맛있게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 외모와는
다르게 강아지를 사랑하
셔서 무려 44마리나 키
운다는~

P'Kai

우리들의 마미. 소녀
감성을 가지셨다. 놀
러 가실 때면 늘 예쁜
웃을 입고 오신다 ☺
항상 피톤과 남매처
럼 지내신다

P'Prae

우리의 엄마! 싹캠팬
Y 대장! 활기찬 웃음
소리가 진짜 아줌마
스타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솟아난다
불끈!

P'Nang

매일 맛있는 음식
을 해주시는 피낭!
상상초월 동안! 러
브커피에서 늘 우
리를 반겨주신다.

P'Tti

우리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져 주시는 산캠팬
YMCA의 운전자! 미소
가 참 귀여우시다. 고장
난 대문 수리 같은 일도
척척 해내시는 다재다
능하신 분!

P'Phecharin

SAOHIN YMCA의 총장
님. 인상이 정말 좋으시
고, 미소가 아름다우시
다.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대전Y
박장동 총장님이 떠오
르는건 왜일까?





PLAY

화두를 만들다
즐거움 만들다



오리엔테이션 및 Welcoming Party

피페차린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차앙마이 YMCA의 구성과 전반적인 활동을 익힐 수 있었고, 스태프들이 준비해 주신 태국 전통의상과 가방을 선물받았다!

Welcoming party에서는 라온아띠 12기를 반겨주는 스태프분들의 환영사와 JKY 학생들의 축하공연을 볼 수 있었다. 태국에서의 첫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에너지데이 캠프 일일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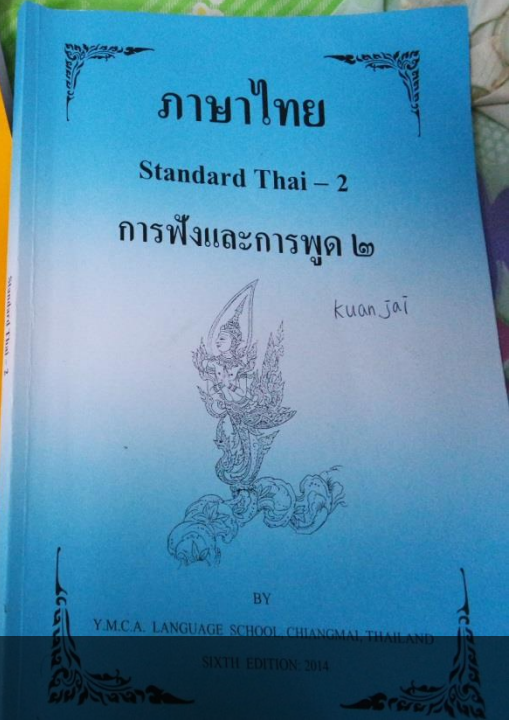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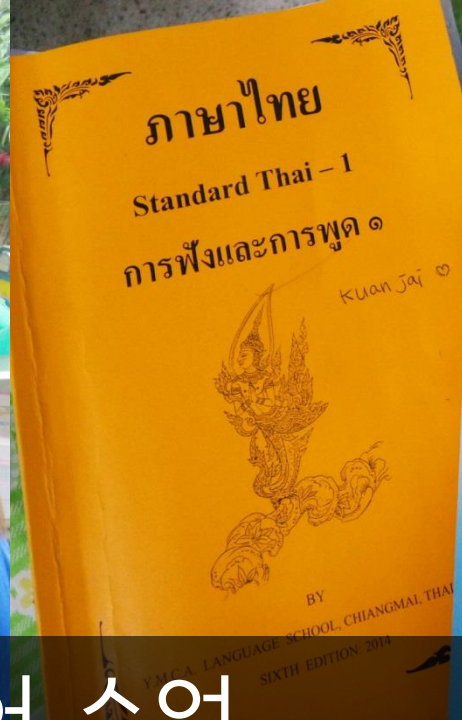


에너지데이 캠프

- 초등학생 대상으로 오전에는 SAOHIN YMCA 에너지관 견학, 오후에는 핫스프링에서 야외수업을 하는 1일 캠프
- 첫째날은 저학년, 둘째날은 고학년을 상대로 야외수업 두개의 station 을 맡아 2인 1조로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 민희와 동영은 ‘Game and Song’수업을 진행하였다. 색깔을 표현하는 영단어 배우고, 노래를 통해 익히는 시간 준비했다. 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자로 참가해주신 분들이 통역해주시지 않았다면 진행이 불가능 했을 듯 하다. 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치만 밝고 활기찬 아이들을 만나 유쾌한 시간이었다.

✓ 미래와 우희는 ‘Art for Earth’수업을 진행하였다.나무를 심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핸드프린팅으로 나무를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처음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수업이라 긴장되었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함께 즐길 수 있어 보람찬 수업이었다. 준비해간 페인트가 모자라 중간에 수업이 끊긴점은 아쉽다. 다음엔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될 것 같다.



태국어 수업

우리에게 태국어 수업은?

동영 : 내 머리 속 지우개..!

민희 :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 것 같은 태국어!

미래 : 책 한권 반을 팔래도 남는 건 자기소개 뿐 ㅠ. ㅠ

우희 : 태국어랑 밀당 하는 나는 팟사타이 밀당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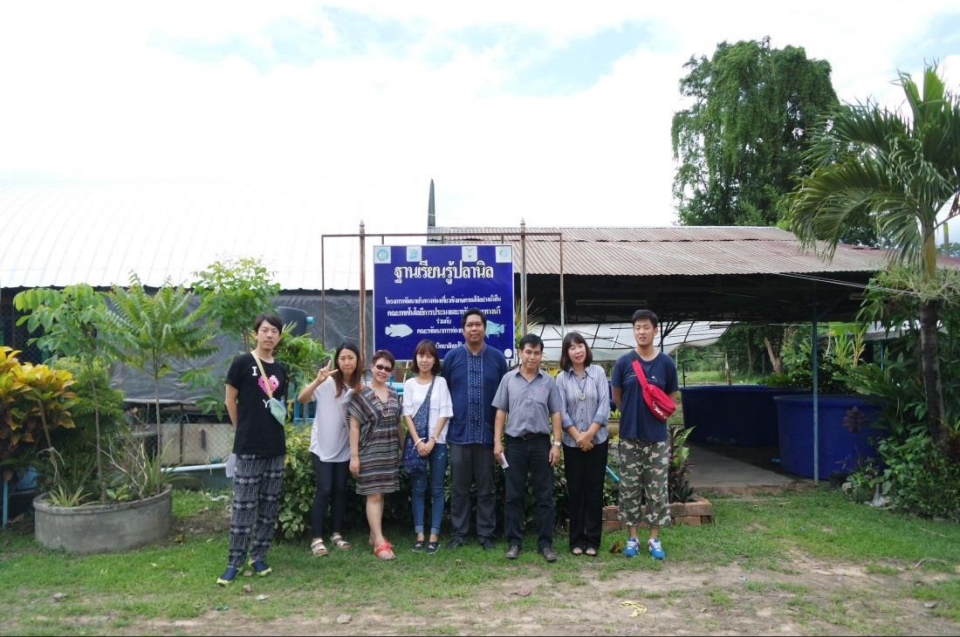
Language School 수업 참관

매주 주말 열리는 산캄핑 YMCA의 랭귀지 스쿨 영어수업을 세 차례 참관했다.
세 번 모두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가서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배울 수 있었고
태국 아이들의 전반적인 수업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바자회 및 커피판매 in JKY학교

바자회를 통해서 아시아 곳곳에서 기부 받은 옷 팔기, 러브 커피 출장 판매까지!
우리 팀은 소고춤을 추면서 바자회를 홍보했고, 러브커피의 판매를 도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어 기분 좋게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 행사의
수익금은 CLP 환자들의 생활비로 전달된다.



NGO 및 대학교 방문

SAN KHANKEAW Foundation에 방문하여 고산 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지도록 하는 단체로, 치밀한 사전 준비와 현지 주민들에게 녹아 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Mejo university에서는 수산업 및 수산 자원학과의 교수님과 수상생태학 교수님을 만나 뵙고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양식업에 대한 방식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서는 실제 어부들에게 그 방법을 전수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또, 민물고기의 생태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통해 생태계에 중요성을 들을 수 있었다.



아리선생님의 교수법 강의 및 수업 시연



Teaching Technic

- JKY학교 교장선생님인 아리선생님의 교수법 강의
- 첫째날에는 수업 진행하는 법과 테크닉들을 배우고, 둘째날에는 직접 각자의 수업을 기획하고, 랭귀지스쿨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시연수업을 함

민희 직업에 대한 영단어를 배워보고 자신의 장래희망을 소개하는 영문장을 익히는 수업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원나무를 만들면서 진행했는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미술 수업이 되기도 하고, 영어 수업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아짠아리의 교수법을 고려하면서 수업하니 체계가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서 유익했다 😊

동영 까몬이 준비한 수업은 과일 이름 영어로 배우기.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들을 영어로 배우고, 마지막에 노래를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시연을 해보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도 느꼈고, 아짠아리의 피드백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우희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만한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인디의 종이접기 교실’을 기획 시연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장미’를 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속출했다. 이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미래 ‘1월부터 12월까지 month배우기’ 영어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짠아리가 알려주신 교수법으로 수업을 기획했지만 직접 시연해보니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아 힘들기도 하였다. 두달 뒤 학교선생님이 되어 매일 수업을 진행하게 될텐데 미리 익혀보고 나의 수업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Wat Sansai 학교 방문 및 활동



Wat Sansai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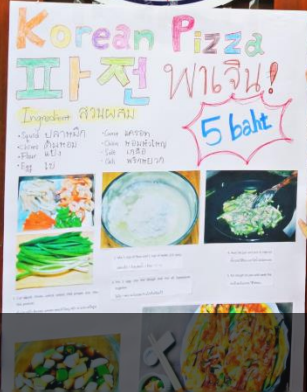
- 버마, 캄보디아 등 주위 국가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이 많은 학교로 생활환경이 넉넉하지 않는 시골마을의 한 초등학교
- 우리소개, 한국소개와 한국어 알려주기, 공연, 노래부르기, feeding시간을 가졌다.

민희 작은 것 하나에도 즐거워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더운 날씨에 조금은 지쳐있던 마음까지 치유되는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크게 따라 하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 그립다. ☺

우희 네명이 각자 조를 이루어 아이들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걸어주던 어린친구들의 해맑은 미소를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먼저 다가와 같이 축구를 하자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동영 맨발로 밭에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나에게 한 아이가 자신의 슬리퍼를 빌려주었다. 더워하는 나에게 계속 물을 떠다주고, 내 곡괭이질에 까르르 웃던 아이들의 모습이 나도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밝은 아이들의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다.

미래 나를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궁금해하는 친구들. 나의 한마디 한마디에 웃는 아이들 덕분에 나도 오랜만에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어떠한 활동보다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서 11월이 되어 학교로 들어가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전 소개 및 판매

랭귀지 스쿨의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한국의 음식 '파전'을 판매하였다. 손님이 없어서 준비한 재료를 다 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큰 관심을 받으며 준비한 재료만큼 다 팔 수 있었다. 첫 날 45조각, 둘째 날 44조각을 팔아 415바트의 수익금이 나왔는데, 아직 어느 곳에 사용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더운 날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한복을 입고 홍보를 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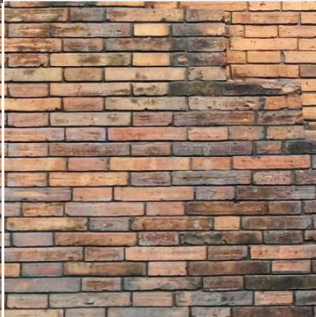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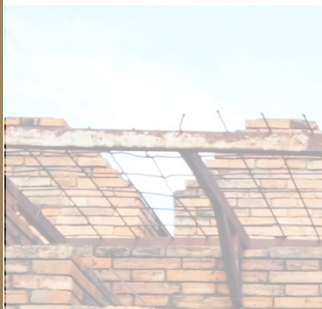
커피 & 태국 음식 만드는 법 배우기

산캄펑 YMCA의 바리스타 피똥과 피낭에게 에스프레소부터 카페모카까지 다양한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처음 다뤄보는 다양한 기기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카페의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는 사실에 더욱 더 열심히 배우게 된 것 같다.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Y의 요리사이기도 한 피낭과 피똥에게 팟타이, 카오팟 같은 태국의 현지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다.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가 참 좋았고, 현지 음식에 대한 친근함이 더욱 커졌다.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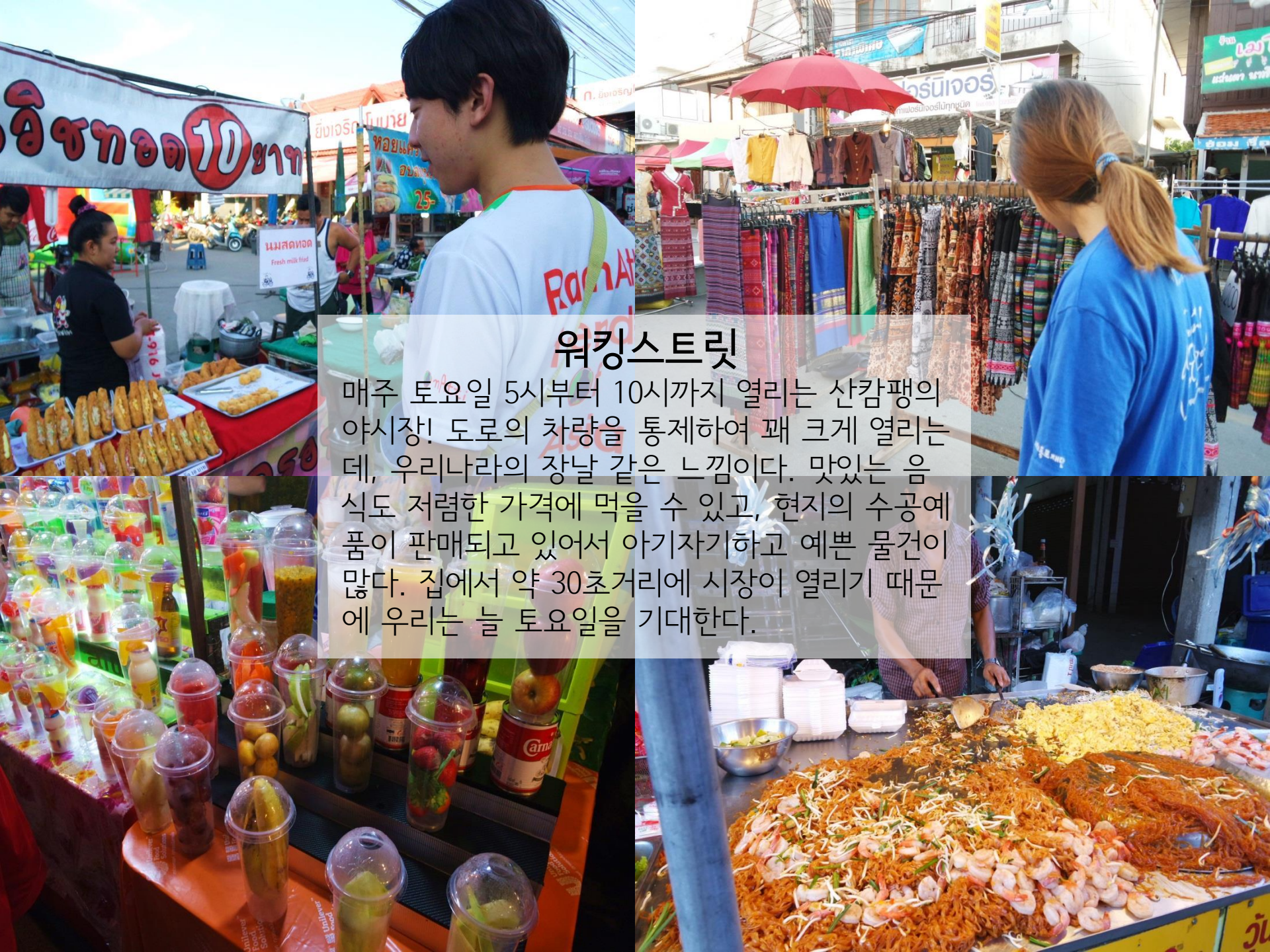
태국을 즐기다





자전거는 우리의 낙

대전에서부터 여가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전거를 즐겨 탔던 우리 팀! 산캠프 YMCA에 구비되어 있는 자전거 덕분에 태국에서도 자전거를 탈수 있었다. YMCA에서 멀리 떨어진 우체국을 갈 때나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고 싶을 때 자전거를 마음껏 이용하였다. 아쉬운 점은 아직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를 탈 때 조금 무섭다는 것..!



워킹스트리트

매주 토요일 5시부터 10시까지 열리는 산캄팜의 야시장!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여 꽤 크게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장날 같은 느낌이다. 맛있는 음식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고, 현지의 수공예품이 판매되고 있어서 아기자기하고 예쁜 물건이 많다. 집에서 약 30초거리에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토요일을 기대한다.



람퐁 페스티벌 구경

운 좋게도 람퐁지역에서 일년에 한 번 하는 페스티벌을 볼 수 있었다. 태국의 색깔과 전통을 직접 볼 수 있어 내가 진짜 태국에 왔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OT때 선물 받은 태국 전통의상을 입고 와트를 둘러보며 태국인들의 삶을 맘껏 느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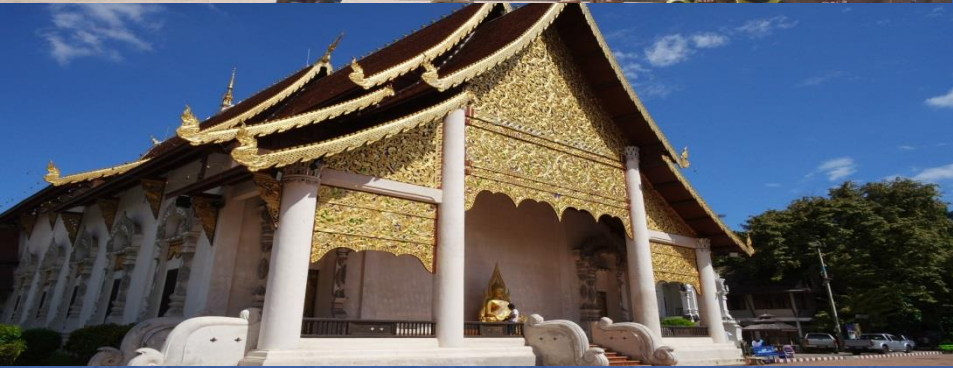
치앙마이 시내 돌아다닐걸 보여줄게.
 첫번째는! 치앙마이의 보물, 왓체디루앙과 왓프라심
 완전 짱임!!



미래: 갑작스레 우리를 치앙마이 올드타운에
 두시간동안 던져주셔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진짜 운도 좋지ㅋㅋ길거리 지도판에서 그냥 딱
 고르고 찾아간게 그 유명한 왓체디루앙이었다
 니!!!!

민희: 길치들 데리고 지도도 없이 왓체디루앙까
 지가준 @우희 고마웁 😊 체디루앙 👍

우희: 나 나 다같이 뜨거운 여름날 함께 인생사
 진을 견져서 좋았어!



미래: 맞아, 우리 표지사진을 건진건 신의한수

동영: 왓체디루앙을 보며 아무 말도 안나오더라.
 또 가서 천천히 둘러보고 싶은 곳





두번째는 태국의 옛 수도 치앙마이 상징, '타파룩' 성벽안에 있던 시장에서 발견한 귀여운 코끼리들 ><



동영: 성벽 주위에 노점상들이 짝 깔려있는게 신기했어. 음식도 팔고, 음료수, 옷 등 사고싶은 것도 많았고. 주스가 제일 맛있었어! 👍

우희: 정작 태국인들은 별로 없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ㅋㅋ 태국만의 색깔을 볼 수 있었어

민희: 귀여운 물건들이 많아 눈이 행복했던 곳 ♡. ♡ 맛난거 많이 팔던데 담에 가면 다 먹어 봐야겠다 ㅋㅋ

미래: 그냥 벽돌 벽인줄 알았는데 깊은 역사가 담겨 있다해서 신기했어. 관광지에 온 느낌이 나서 약간 설렘? ㅋ

세번째는 central plaza 백화점에서 먹은 한식 ㅎㅎ
 비비루당~~



우희: 간만에 한국음식을 먹어서 행복했어 ㅎㅎ

민희: 워킹스트리트 물가에 익숙해졌던 나는 이곳에서 가격쇼크 @_@ 그래도 한식 맛있었고 즐거웠던 하루였어 <3

미래: 맞아.. 엄청난 가격에 후덜덜..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왔지.. ㅋㅋㅋ 진짜 이제 태국 물가가 몸에 베였나봐..

동영: 백화점은 역시 백화점. 근데 다들 한국음식 맛있어지? ㅋ



네번째는 치앙마이 박물관 구경~ 박물관은 총 세 관 이었고 시간이 넉넉치 않아 각자 원하는 관에 갔어



동영: 90바트라는 입장료만큼의 볼거리였어. 나는 역사 박물관을 봤는데 란나왕조에 대해 조금 이나마 알게 되었어.

민희: 설명이 영어 아니면 태국어 두개 뿐이라 설명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ㅠ3ㅠ 그래도 동영오빠가 빌려줬던 태국 문화에 관한 책 내용을 실제로 보게 되어서 신기했어 😊

우희: 내 짧은 언어 실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게 정말 아쉬웠지만 태국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미래: 원래 박물관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뭐 한번쯤은 가볼만 했어. 두번은 No no ㅋㅋ



본 코너는 다음달 사라질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THE ATTI NEWS

2014.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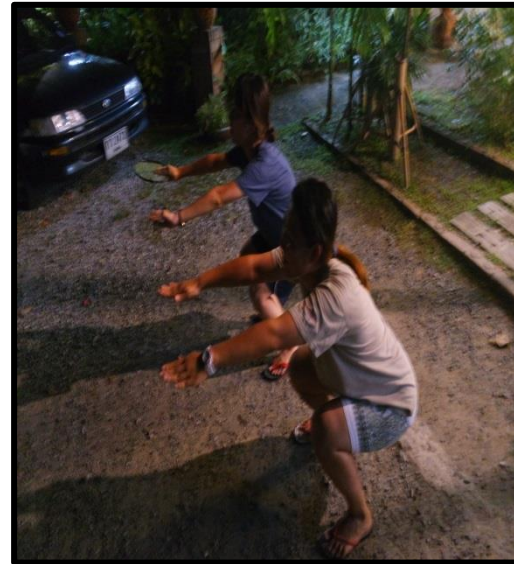
태국팀 한달 동안 무려 8차례의 소고춤 공연을 하다



대전에서 그렇게 투덜대며 배웠던 소고춤을 태국에서 원없이 펼치고 있는 태국팀. 차모양(21세)은 “이렇게라도 숙식비를 벌어야지 뭐 어찌겠어요..”라고 말하며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여자단원, 운동에 미치다

민희단원과 미래단원이 ‘스쿼트 30일챌린지’에 도전중이다. 하루에 50개로 시작한 스쿼트는 현재 25일째 220개로 불어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일 열심히 운동중이다. 우희단원은 매일 그녀들 옆에서 “니들이 운동해봤자..”라며 비웃지만 그녀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개인 에세이

About September



인디(이우희)

벌써 10월이 되어 에세이를 쓰다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 같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의외로 이런 저런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즐거운 일도 있었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을까 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겪고 보니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게 감사하며 기쁘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던 YMCA 식구들! 항상 우리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정성을 다해 준비해주시고 맛있냐고 물어보시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행복한 한 달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는데 밥도 잘 먹지 않고 우울해 하며 방황(?) 하던 때에 비는 폭우처럼 쏟아지고 우산도 없이 늦은 밤 밖에 있었는데 날 데리러 와주고 걱정해주던 우리 까몬, 찻사이, 퀸짜이. 그날은 정말 고맙고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이제는 진짜 어디를 가셔도 우린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에게 첫 달 9월은 또 다른 가족이라는 인연을 만든 기쁜 달이었다.

쿠엔자이(차리라비) -1

아..시간이 가는구나

이곳에 온지 2주쯤 됐을 때, 나는 이곳 시간이 멈춘건 아닌지 생각했다. 도저히 가지 않는 시간. 아직 2주밖에 안지났다니..."나만 이렇게 시간이 안가는거야?"팀원들에게 투정을 부려봤지만 팀원들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냐는 대답을 하였다. 9월 일정은 여유로운 날이 많았다. 중간 중간 한번씩 야외 일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대부분 숙소인 산캄핑Y에 있었다. 그 날도 별 일정이 없던 하루, 점심을 먹고 침대에 가만히 누웠다. '아..나 지금 뭐하는거지?'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첫차를 타고 병원 실습을 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갔을텐데. 그런 바쁜 하루마저 그리웠다. 그토록 바랬던 라온아띠 생활인데 왜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투정을 부리는 내가 싫었다.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나는 모든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무런 이미지와 편견을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달간의 국내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라온아띠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가 심어진 것 같다. 마을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곳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지속성있게 함께 꾸려나가는 것. 청년들과 모여 함께 마을 이야기를 하는 것 등등. 하지만 이 곳 산캄핑, 태국에 오니 이러한 이미지들이 나를 더 한심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내년 2월까지 모든 일정이 짜여져있는 이곳. 12기째 라온아띠가 이 곳으로 와서 그런지 모기장부터 침대,세탁기,와이파이 심지어 밥도 청소도 다 해주는 이 곳. 10기부터 시작해온 러브커피 카페덕분에 커피,음료수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곳. 맨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리조트에 놀러 온게 아니냐고 눈이 휘둥그레 해질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했다.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투정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몸이 편한 환경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금방 지쳤다.

권재이(차리라) -2

바쁘게 살아온 나에게 이러한 '빈 시간'은 길을 잃고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순 없었다. 분명 다 이유가 있으니 라온아미가 12기째 이곳에 오는 것일 터. 친구들에게 투정도 부리고 귀국 단원들에게 메세지도 보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빈 시간'들을 잘 쓸 수 있을까. 책과는 거리가 멀었던 내가 이곳에서 책 네 권 짜를 읽고, 바쁜 일정속에 미뤄둔 여러 고민거리들을 꺼집어내 혼자만의 공상의 시간도 갖고, 팀원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멀어진 친구들에게 엽서도 보내고. 조금씩 조금씩 나는 이 빈시간을 채우기 시작하였고, 이런 생활을 적응하기로 하였다. 글도 쓰고 시도 쓰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 이곳 저곳을 다니고, 옆집 대문 앞을 괜히 기웃기웃거리려 옆집 아저씨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을 사람 한명이라도 친해지려고 짬해둔 노점상만 매일 가서 단골이 되어 주인 아저씨와 친해지기도 했다. 9월 중반이 넘어가니 우리팀 일정도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곳에 적응이 된건지 일정이 바빠져서 그런지, 초반과는 눈에 띄게 다르게 나는 다시 긍정적인 나로 돌아갔다.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았고 친구들에게 투정부리는 일도 없었다.

이 글을 쓰는 오늘은 이곳에 온지 32일째가 되는 날이다. 초반에 그렇게도 안갔던 시간이, 아직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태국어 실력도 아직 밑바닥 수준인데, 친구도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벌써 5분의 1이 지났다. 내일이면 고산지대로 몇일 간 캠프를 떠나게 되고 앞으로 end poverty 캠페인, 그외 여러 일정이 다가온다. 초반에는 왜 9월 일정을 이렇게 널널하게 잡아주셨을까,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안달이 나있었다. 그래서 그런가, 앞으로 하게 될 일정들이 더 기대되고 신이 난다. 일정표가 박박할수록 더 기분이 좋아진다. (노련한 산캠팬Y의 노림수에 속아난걸까? ㅋㅋ)

쿠션자이(차리라이) -3

정말이지 나는 9월 오자마자 앞서 말한 고민들을 하게 될꺼라곤 생각도 못했었다. 보통 다들 두세달쯤 지나면 '내가 여기 왜 있나'이런 고민에 빠진다고 했는데 나는 무슨 오자마자 이런 고민에 휩싸였던것인가. 아마 또 언젠가 이런 고민에 다시 휩싸일때가 있겠지. 그럴 때 일수록 좀 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튼 나는 지금 행복하다. 팀원들과 다툴 때도 있고 개미에게 밥을 뺏겨 속상할 때도 있고 모기에 물려 짜증날때도 있지만(하루평균 다섯방 물리기), 매일 팀원들과 웃으며 장난치고 보드게임을 하고 산캠핑Y스텝들과 정을 나누고 이곳에 조금씩 물들어가는게, 참 재미있다. 이곳이 아니라면 하지 못할 고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갈 수있다는게 감사하기도 하다.

나의 지난 한 달은, 앞으로 4개월을 즐겁게 살기위한 격한 준비운동이 아니었나싶다.

짱쌔이(노민희) -1

1차 합격을 확인하던 순간, 면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던 버스 안,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하는 한 통의 통화. 마냥 얼떨떨하고 환희에 차있던 순간들이었다. '내가 라온아띠에 합격했구나'라는 생각에 앞뒤 볼 것 없이 휴학을 결정하고 많은 것을 뒤로 한 채 설렘으로 가득 찼었다.

그런 나에게 한 달간의 국내 훈련,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의 9월 한 달은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고민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보자마자 지원을 결심하게 했던 모집 포스터의 문구처럼 '내 생애 가장 따뜻했던 날들' 치고는 너무 힘들었다. 누군가와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공유한 것이 처음이었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언성을 높여가며 싸워 본 것도 처음이었다. 마음의 준비가 되기도 전에 내 인생에 '라온아띠 12기 태국팀'이라는 울타리를 치며 자리잡은 다른 3명의 팀원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진심을 다해 화를 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해보기도 했다. 참아보기도 했고, 받아들이기도 했다. 괜히 말 못하고 속으로 혼자 삭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혼자 토라지기도 했다.

그런 쉽지 않은 순간들이 2달이라는 시간을 거쳐 예전과는 다른 나를 만들었다. 라온아띠 합격자 '노민희'가 아니라 라온아띠 12기 태국팀의 '노민희'가 됐다고 표현하고 싶다. 지금의 내가 2달 전 나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짚짜이(노민희) -2

아직도 라온아띠 합격자인 '나'와 라온아띠 단원으로서의 '나'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은 서지 않는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나, 라온아띠 단원으로서의 내가 태국팀이라는 큰 그림에 더욱 잘 맞는 퍼즐 조각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만나게 될 소중한 인연들과 새로운 환경이 이젠 마냥 설레기보단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진다. 남은 4개월간 만나게 될 모든 것들로 겪어야 할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한 달, 태국에서 한 달. 많은 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했던 지난 2달은 분명 즐거웠다. 소중한 인연들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이 만들어 낸 지금의 나이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 소중하기만 하다. 태국에서 남은 시간도 돌이켜 봤을 때 그런 순간들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란다.

까문(고동영)

9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4일부터 태국이라는 나라는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그전까지는 막연한 느낌만으로 존재하던 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보니 내가 했던 걱정들은 참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무더울 거라고 생각했던 태국의 날씨는 한국의 여름과 비슷했고, 밥도 맛있었다. 스태프들과 의사소통은 그럭저럭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를 알았다. 아직은 문장 하나도 더듬거리면서 말하고 어순도 틀리고 있어서 아이들과 언어 이외의 수단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언어로도 소통하는 나를 꿈꿔본다.



점쿵카 😊